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교황 “평화로운 미래 위해 홀로코스트 기억해야”



▲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방문하여 기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2016년). 사진=비타민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은 홀로코스트 추모일인 27일 비둘기 날개 날아가는 날이 또다른 대량학살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나치가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살해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코로나 19 제한으로 자신의 개인 도서관에서 보낸 1주일 간의 일반일현을 끝내며 행한 즉석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럽에서 모두 합쳐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과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독일인과 그 협력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교황은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것이 인류애의 상징이자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것은 이념적 제안에서 시작돼 한 민족을 구하거나 한 민족과 인류를 파괴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고 덧붙였다.

교황은 홀로코스트가 “죽음, 말살, 잔혹성의 길”을 열었다고 경고했다.

교황은 2016년 집단 학살의 현장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해 추모 미사를 집례한 바 있다.



마음이 즐거운 자(잠언 15:13-15)

<복>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고, 살 만큼 삽니다. 이만 하면 복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냐고 물으면 한참을 생각합니다. <복되다>하는 것과 <행복지수>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증명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 풍성한 음식이 놓여져 있으면 복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행복은 무엇입니까? 입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에 속합니다. 불행은 복을 앞에 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 많은 음식을 상에 그득히 놓고도 입맛이 없어서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이 즐거운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 그대로 마음이 즐거운 자가 곧 행복한 자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흔히 <의무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에서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매우 불쾌한 것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밀접한 관계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부부는 만날 때마다 새롭고 매일같이 사랑을 새롭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현재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의무로 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결혼했으니 살아야지. 애도 있으니 살아야지. 지금까지 살았으니 마저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픽=타운뉴스DB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의존감을 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 하며, 돈에 의존하고 있는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소유에 의해서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과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 여건이 그만 바뀌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의 표현으로 ‘항상 잔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잔치란 기쁨의 극치요, 행복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항상 잔치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그 본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잔치란 물질의 문제가 아니며 음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보세요, 좋은 사람이 모여야 행복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흥겨운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 집에서는 덕담만 해야 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은 나누어야 이것이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사랑만이 있고 덕담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얼굴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랬습니다. 잔치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얼굴도 빛이 나와 합니다. 찬송하는 사람의 얼굴도 빛이 나와 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 합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잔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잔치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불평하고 악담하고 원망하고 초상집같이 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거운 잔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 늘 잔치하는 인생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철현 목사-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모집 인원

풀타임 디자이너 1명

제출 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각 1부

서류 제출 방법

info@townnewsusa.com 이메일 제출

기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일정은 개인별 통보함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404-0027 (Rosecrans Ave + Valley View Ave)